

## 위스컨신大學의 特性과 教育環境

尹 禹 永  
(高麗大 金屬工學科)

### 1.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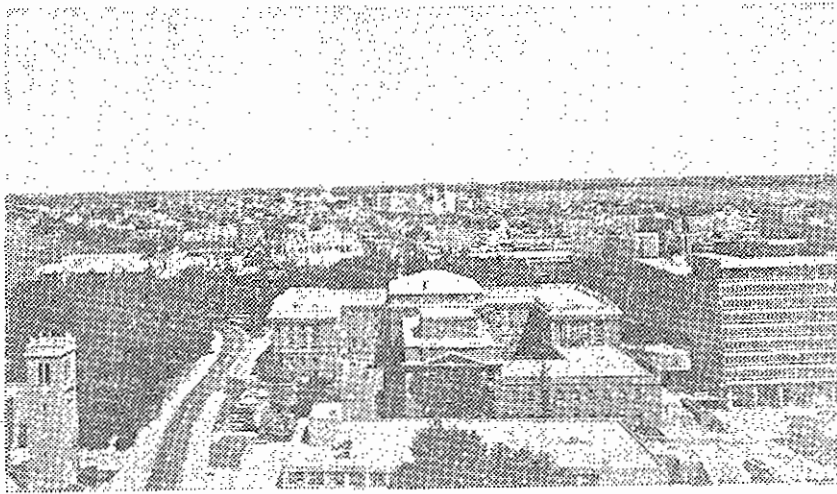
1년에 겨울이 5개월씩이나 되는 인구 17만의 소도시 Madison에서 교육과 연구에 있어 미국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有數한 大學 중의 하나인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을 가능하게 한 동기는 어디에 있을까? 1985년 9월 현재 학생 수 45,050명의 대규모 대학으로 자랑할 수 있게 한 위스컨신州와 Madison市の 여건과 전통을 통해 현재의 U.W.-Madison의 모습과 그들과 우리와의 관계 등을 알아 보고자 한다.

### 2. 위스컨신州와 위스컨신州立大學의 體制

독일 및 북구계 유럽인들의 비교적 늦은 美大陸으로의 이민 역사와 함께 성장한 美國 中西部에 위치한 위스컨신州는 미국의 50개 州 중 인구로는 17번째(1987년말 현재 4,807,000명), 면적으로는 26번째(56만km<sup>2</sup>, 한반도의 약 2.5배)에 해당하는 풍부한 天然資源과 自然의 아름다움이 빼어나며 또한 농·임업과 공업을 잘 조화시킨 州로 이름이 나 있다. 그리하여 中部에서는 定評 있는 휴양지로, 그러나 미국 전체의 무역 적자에도 불구하고 1985년 현재의 수출이

628억 4천 달러에 달하는(50개 州 가운데 11번째) 무역 흑자 州로 각광을 받고 있다. 住民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독일계 美國人들은 카톨릭 신앙을 주축으로 건강하고 성실한 삶을 유지하며, 특히 2세 교육에 매우 열심인데, 단적인 예로 고교 졸업 후 大學 선발 시험격인 SAT(Scholastic Aptitude Test) 평균 점수가 전체 50개 州 중 늘 최고를 유지하며 주 정부는 주립대학의 예산에까지 참여하는 열성을 보이고 있다.

위스컨신의 주립대학은 1971년 이전에는 현재의 캘리포니아州 등의 여러 州에서와 같은 두개의 시스템, 즉 University of Wisconsin 형태와 Wisconsin State University 형태로 되어 있어 前者에 4개교, 後者에 9개교가 있었으나 1971년에 새로운 법령에 의거하여 지금은 통일된 하나의 University of Wisconsin System의 13개 대학 27개 캠퍼스로 조직되어 있다. 전체 대학의 1988년 현재 총 예산은 17억 8천만 달러이며 학생 수는 162,000명에 달하고 이중 36%인 58,255명에 2억 2천 3백만 달러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다. 전체 예산의 구성은 40%는 주 정부에서, 46%는 연구비 및 기부금에서, 나머지 14%가 학생의 등록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1988년 6월 30일 현재까지 졸업한 학사 출신은 55만 명, 석사 14만 명, 박사 2만 7천 명에 달하는 미국내 굴지의 대학인 것이다.



◀ 위스컨신대학은 1960년대 反戰 學生運動의 대명사로 일컬어졌으며, 현재도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학풍을 간직하고 있다.

위스컨신 주립대학을 움직이는 기구로는 시스템 전체의 교육위원회인 Board of Regents와 System 총장(president), 각 대학교 총장(chancellor) 등을 꼽을 수 있겠다. Board of Regents는 주지사가 주 상원의 동의로 임명하는 7년 임기의 14인과 2년 임기의 1인의 학생, 그리고 2인의 주 관리(공립 교육 담당자와 직업 및 성인 교육 담당자)로 이루어진다. 이곳에서는 시스템을 움직이는 정책과 법령들을 결정하고 州와 州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사하여 그것에 맞춘 새로운 교육 제도를 설정한다. 전체 시스템의 행정을 총괄하는 president와 각 대학교의 행정을 총괄하는 chancellor가 있으며 이들의 임명 또한 Board of Regents의 최종 심의와 함께 주지사가 결정을 한다.

U.W.-Madison의 학생들의 의사 결정 기구는 학생회를 결성, 학생회 상원과 집행부를 담당하며 모든 정책 결정의 투표권자인 44명을 선택한다. 학생회는 학생들의 관심과 생각을 교수들과 학교 정책 결정 기구에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학생회비는 등록금 중 일부에 포함되며 학생회 속의 400여 개의 공식 단체의 활동에 보조하기도 한다. 수 많은 전문직, 취미, 종교, 친목 단체들이 있으며 대학 공화당과 대학 민주당 등의 정치 단체도 있다. 미국 대학의 학생회는

주요 정치와 사회적 사건에 대해 의견을 표시할 데도 있으나 현재의 추세는 학생들의 친목과 학교 주변, 주민 등과의 유대 등에 보다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13개 주립대학들의 학생 활동과 학교 행정은 철저히 분리되어 있고 전공 과목 또한 지역 특성에 맞게 분산되어 있는 편이다.

### 3.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위스컨신州의 州都인 Madison市에 위치한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은 위스컨신의 13개 주립대학들 중 가장 크며 실제로 시스템 전체의 석·박사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박사 학위는 Madison과 Milwaukee 두 대학에서만 수여가 가능하다).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은 1848년에 설립되었으며 그 규모는 1988년 6월 현재 학생 수 43,644명(대학원생 12,000명 포함), 교수 수 2,325명, 총면적 10,000에이커가 넘는 대규모 대학이다. 학교의 질에 있어서도 1910년 이래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교수진에 관한 의견 조사(faculty reputational survey)’에서 연속 10위 이내에 드는 대학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특히 대학원 교육의 中心 指標라 할 수 있는 연구·개발비(research and development fund)는 매년 미

국내에서 3 위 이내에 든다.

유명한 식물원(arboretum) 및 실습 농장을 제외한 학교의 주요 시설은 908 에이커의 대지 위에 Madison 市 안에 위치하며, 학교는 3 개의 College 와 10 개의 School(우리나라 제도로는 13 개 단과대학), 133 개 학과로 구성되며 실제의 학부 전공 분야는 152 개, 또 191 개의 석사 전공 및 123 개의 박사 전공 분야가 있으며 매학기 개설되는 과목이 4,200 여 개에 이르는 종합대학이다. 미국 대학교육의 지표라 할 수 있는 도서관 제도는 종합도서관적인 Memorial 도서관을 비롯하여 학부 전담, 공학, 농학, 법학, 경영학 등 22 개 주도서관(major library) 및 수많은 특수 도서관들로 구성되어 있고 보유 장서 또한 1985 년 현재 450 만 부에 달한다. 학교의 지명도를 알 수 있는 소속 학생의 출신 비율을 알아 보면 총 학생 중 위스컨신 주 출신이 아닌 학생이 14,000 여 명, 특히 외국인은 4,600 여 명에 달하는 대학으로 이 수치 또한 미국내 1·2 위를 다투는 규모이다. 이중 한국 학생 수는 약 450 명 정도로 1985 년부터 대만을 제치고 외국 학생 중 최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988 년 학교의 예산은 총 9 억 2 천만 달러에 이르며 이중 주 정부 및 연방 정부 보조는 29%에 해당하며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한 분담액은 1 억 달러 정도로 겨우 11%에 불과하다. 그러나 총 예산의 27%에 이르는 2 억 5 천만 달러의 위스컨신주 외부 연구비 및 기부금은 U.W.-Madison 을 위스컨신 주 안에서 외부로부터 돈을 제일 많이 벌어들이는 명실공히 최대의 기업으로 간주되도록 하여 학교의 주 정부에 대한 입지를 강화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 또한 이 자금을 바탕으로 총 16,000 여 명의 학생에게 5 천 2 백만 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 4. U.W.-Madison 의 便宜 施設과 學生活動

1960 년대 Univ. of California-Berkley 와 함께 전국의 反戰 학생운동의 대명사로 州 방위군의 발포로 수 명의 학생이 죽고 심지어 오래된

城 모양의 붉은 벽돌 체육관인 Red Gym.이 불탔다. 또한 ROTC 건물의 사제 폭탄 폭발에까지 이른 학생운동은 학생회장을 Madison 市長에 까지 당선시킬 정도로 U.W.-Madison 을 뒤흔들었으나 학교에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학풍만을 남긴 채 지금은 사라졌다. 그러나 졸업식의 자유분방함, 특히 Halloween 州 거리 전체에서의 가면 놀이는 매우 독특하고 유명한 행사로 이때에는 Madison 市의 중심지인 이 거리가 완전히 기묘묘한 독창적인 가면을 쓴 인파로 뒤덮혀 축제를 한다. 종종 사고를 동반하여 시 당국의 행사 반대가 매년 토의되나 이 행사를 주관하는 학생회와 시민들의 다짐과 여론에 의해 자유분방한 전통이 계속되고 있다.

캠퍼스내 두 곳에 위치한 학생회관(union)에는 극장, 볼링장 등의 제반 오락 시설과 무도장이 있으며 여러 학생 클럽이 운영되고 또한 학생들 간의 상호 의견 교환이나 무료 개인교수(tutoring)제도가 운영되기도 한다. 위스컨신의 학생 클럽 중 유명한 것에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야의 활동 클럽인 1931 년에 설립된 Wisconsin Hoofers 인데 이곳에서는 스키, 승마, 스쿠버, 등산, 요트 등의 모든 종류의 놀이를 즐길 수 있다.

U.W.-Madison 에는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2 개의 일간 신문을 발행하며, 라디오 방송국 및 T.V. 교육 방송국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자유로움과 주민 교육에 이바지하기도 한다. 학생 생활의 근간이 되는 기숙사 시설은 학부생용의 대형 기숙사와 특신 대학원생용 시설 및 기혼 대학원생용의 Eagle Heights Apt, 박사후과정 연구자(post-doctor) 및 교수용 University House 로 나뉘어져 있다. 학부생용의 기숙사는 30~50 명 단위의 House 로 조직된 몇 개의 Hall 들로 이루어져 총 6,800 여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남녀 학생관은 다른 Hall 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하여 많은 학생 활동 및 신입생 환영식이 이 House 별로 이루어져 House 들간의 경쟁 및 유대로 매우 재미 있는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편의 시설은 너무나 잘 되어 있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지만 대략 언급하면, 우선 미국에서 가장 큰 실내 테니스 및 라켓 불장인

12면의 실내 테니스장과 6면의 라켓 볼장을 가지고 있는 Nielson tennis stadium을 꼽을 수 있다. 이외에도 실내 수영장 3군데, 실내 스케이트장, 실내 트랙 등 수 많은 실내 및 실외 편의 시설이 산재하며 무료 또는 매우 싼 값으로 학생들에게 개방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을 바탕으로 매우 탄탄한 아마추어 체육을 신장시켜 중서부 10개 주립대학 간의 체육 동맹인 Big 10 conference에 소속하여 남자는 농구, 미식축구, 체조, 수영, 테니스, 육상, 골프 등 13개 종목에서 여자는 농구, 배구, 펜싱 등 10개 종목에서 서로 교환 경기를 갖고 있다. 그리하여 위스컨신주를 상징하며 U.W.-Madison의 상징물이기도 한 오소리(badger)를 앞세운 열띤 미식축구, 농구 및 아이스하키 등의 응원전에서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과 주민들의 잔치로까지 발전되기도 한다.

U.W.-Madison을 언급하면서 식물원(arboretum)을 빼놓을 수는 없다. 농업과 광업을 주축으로 성장한 깨달게 학교 또한 농대와 공대를 시작으로 발전되어 온 전통이 있다. U.W.-Madison의 식물원은 전통에 걸맞게 3,025 에이커의 땅에 각종 수목이 우거지고 봄·가을의 꽃과 낙엽 잔치는 중간고사 기간과 겹쳐 학생들의 원망과 함께 그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식물원의 산책로는 여름에는 등산로, 겨울에는 크로스 컨트리 스키장으로 적합하며 주위의 아름다운 Wingra 호수와 어우러져 도시의 낙원으로 간주된다.

## 5. Madison市

물이 모이는 땅이라는 인디언 말에서 따온 위스컨신州名에 걸맞게 위스컨신州에는 많은 호수와 강이 있으며 이와 함께 중서부에서는 유일하게 구릉 지대가 있어 산과 계곡을 감상할 수 있다. 그로 인해 겨울에는 스키를 탈 수 있는 지역으로 중서부에서 이름난 휴양지가 많은 州이기도 하다. U.W.-Madison이 자리잡은 Madison市는 인구 17만 명의 州정부와 학교가 근간을 이루는 조용하고 쾌적한 도시로 미국내에서 아름답고 살기 좋은 10대 도시에 끼이는 곳이다. 이곳에도 Mendota와 Monona 등의 4개의



▲ 위스컨신州의 호수, 많은 눈(雪)과 아름다운 경치는 영화의 좋은 배경이 되기도 한다(사진은 캠퍼스의 봄 풍경).

호수가 있고 주 청사가 두 호수 사이의 地峽(isthmus)에 위치한 도시로 학교와 기숙사 시설 또한 호수를 따라 건설된 경치 좋은 곳이다. 위스컨신州의 많은 눈(雪)과 경치의 아름다움은 일찍이 영화 '닥터 지바고', 또 反戰 영화인 'yesterday'와 최근의 희극 오락 영화인 'Back to School'의 무대가 위스컨신州와 U. W.-Madison임을 감안하면 상상이 가능할 것이다.

여름 기간 동안 주말 새벽 5시부터 오전 동안 채소와 야채뿐 아니라 벌꿀 및 인삼까지 싼 값으로 구입할 수 있는 Farmers Market이라는 一時場은 州 청사 주위에서 열리는 것으로 Madison의 또 다른 명소이다. 인삼은 미국내 수요의 90%를 위스컨신州에서 공급하고 심지어 홍콩 및 우리나라로까지 수출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위스컨신州의 토양 성질이 우리와 비슷한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Madison市 근교의 도시인 spring green에는 한국 사람이 공동 단장인 세익스피어의 연극만을 공연하는 연극인 집단 생활 단체인 American players theater가 있어 수준 높은 연극을 감상할 수 있어

Madison 의 하나의 장점을 더 하기도 한다.

## 6. U.W.-Madison 과 우리나라

U.W.-Madison 에는 화학과에 유력 교수를 비롯하여 수 명의 한국인 교수가 있으며, 약 450 명의 한국 학생이 최대의 외국 학생군을 형성하고 있다. 대부분 한국에서 유학을 간 대학원생들로 구성되어 왔으나, 최근의 경향은 학부에도 미국내 또는 한국에서의 유학생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학생들은 주로 공대 등 자연계열을 수학했던 과거의 경향으로부터 탈피하여 요즘은 경제, 경영, 사회학 등 인문계열의 여러 학문에까지 많은 분야에서 연구를 행하고 있다. U.W.-Madison 의 많은 프로그램 중 특징 있는 것으로는 공공 서비스 프로그램과 단과대학에 속해 있는 전공 분야로 후진국의 개발에 필요한 고급 인력 양성에 도움을 주는 개발도상국 센터라는 특수 프로그램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 특히 서기관 이상의 고급 관료들이 많이 수학을 한 곳으로 현재도 많은 연구를 수행하는 곳이다. U.W.-Madison 에서의 한국학

에 대한 관심을 알아 보면 2~3 년 전부터 현재까지 한국 언어 강의가 한 과목 개설되어 외국 학생 및 교포 2 세들에게 한국 유학생 중 언어학 계통을 전공하는 학생이 강의를 맡아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 동아시아 언어와 지역 연구 프로그램을 위한 국립자료센터(National Resource Center for East Asian Languages & Area Studies Program)에 한국 언어와 문학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를 채용하려는 시도가 있다. 그들의 움직임은 비록 우리나라의 우수 대학들과 여러 기관에서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U.W.-Madison 같은 굴지의 대학에서 한국과 한국학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끝으로 U.W.-Madison 출신의 한국 학생 및 교수들 중 국내에 돌아와 있는 수를 보면 약 400 여 명에 달하며 학계, 관계, 재계 등에 고루 퍼져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동창회를 결성하여 동창회원 명부를 발행하고 1년에 한번 정도의 모임과 서너 차례의 동창회 소식 발송을 통해 우의를 다져가고 있다. \*